2017-35 8월 27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1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다 함께 여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4 경배의 찬송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 함께 다 함께 소 공동기도 다 함께 |
|---|
|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일 어둡던 하늘은 비를 뿌리더니 다시 맑은 하늘이 되었습니다. 맑았다어둡다하는 모양새가 우리 마음의 풍경을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고 쉽게 변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의뿌리를 일상에 깊이 내리고 좀 더 의연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토대를 다시 쌓고있습니다. 이 사회 곳곳이 정의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정치와 경제가 더는 부도덕하게 결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부 계층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 드립니다. 아멘. |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 교 독 문다 함께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 2부대표기도김인걸 장로 |
| 2부응 답 송 찬양대 |
| 2부찬 양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 함께 |
| ▲ 성경봉독 ····· 대하 33:10-13 ···· I. 인도자 II. 김재환 집사 |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 2부찬 양 시편 150편 찬양대 |
| 주께 찬양 주께 찬양 찬양 그의 전에서 찬양 그의 전에서 찬양 찬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x2) |

주께 찬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 그의 지극히 관대하심을
주께 찬양 주께 찬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께 찬양 찬양 그의 지극히 관대하심을
나팔소리 울려서 주께 찬양 나팔소리 울려서 찬양(x2)
비파와 수금으로 주께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소고 치며 춤추며 찬양(x3) 주께 찬양
현악과 퉁수로 현악과 퉁수로 주 찬양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x2)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x2)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 주 찬양
찬양 주께 찬양 주께 찬양

| | 발 | 씀 . | • | 눈을 뜨디 | | | · 김기 | 석 목시 | ` |
|---------|-----|------|---|----------|--------|--------|--------|-------------------|----|
| | 거둠기 | 도 · | | | | | Т | 다 함께 |]] |
| 2-1 | 부찬 | 야 . | | · 하나님의 은 | 혜 | | 류성. | 수 형저 | 1 |
| • | 봉 | 헌 | 317. 1 | 내 주 예수 주 | 신 은혜 (| 1,5절) | τ | 다 함께 |]] |
| | 봉헌기 | 도 | | | | | ···· Ę | 남임 목 시 | √ |
| | 공동체 | 소식 | | | | | 딛 | ት임목 시 | ·ŀ |
| | 평화의 | 인사 | | | | | ···· Г | 나 함께 | |
| | 보냄의 | 말씀 | | | | | ···· Г | 나 함께 | |
| | 인 도 | . 자: | 교우 여러분, | 이제 평안히 불 | 돌아가십시 | 오. 복음의 | 말씀을 | 을 들었 | Į |
| | | | 으니 참 자유역 | 인답게 사십시 | 오. 욕망괴 | 나 두려움이 | 가득 | 찬 눈 | - |
| | | | 빛으로 살지 다 | 마십시오. 마음 | 을 겸손히 | 하고 주님 | 님을 바 | 라보며 | 1 |
| | | | 사십시오. 주닏 |]만이 하나님여 | 기심을 고박 | 백하며 사십 | 시오. | 주님께 | |
| | | | 서 늘 우리의 | 삶을 인도해 - | 주실 것입니 | 니다. | | | |
| | 다 함 | 께: | 아멘. 그릇된 | 욕망과 감정어 | 이끌려 / | 살아온 지닌 | 난날의 | 모습을 | - |

오. 아멘.

▲ 차

복

반성합니다. 이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본모습을 살피며 살 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신 주님만 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

····· 담임목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믿음으로 읽는 글 ■

우리는 공동체의 비유다

떼제 공동체는 1940년에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형성 중인 공동체'다. 수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공동체의 역사나 전통'을 거론하는 일이 거의 없다.

창설자 로제 수사는 어떤 제도나 구조를 만들려 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떼제는 그런 제도나 구조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원장을 제외하고는 어떤 직책이나 명칭도 없다. 누군가 '수련장長'이 누구냐고 물으면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 물론 젊은 형제들의 양성 책임자가 있고, 어떤 분야에는 어떤 수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직책명이 있거나 쓰지도 않는다. 또 이 책임 내지 소임이 바뀔 수 있고실제로 바뀐다.

우리 공동체가 규모를 키우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던 1970년대에 우리가 원했다면 회원이 많은 대규모 공동체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로제 수사는 어떤 조직이든 규모가 커지면 행정과 관리가 필요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지속하는 데 많은 힘을 쏟게 마련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그것은 떼제의 길이 아니었다.

로제 수사는 1952-1953년 『떼제의 규칙』을 썼다. 공동체를 시작한 지 12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첫 두 해는 혼자서, 그다음에는 형제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규칙이나 회헌(수도회의 헌장, 헌법 같은 것)을 먼저 써 놓고 그에 맞추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10여 년 먼저 공동생활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규칙을 쓴 것이다. 그것도 공동생활을 규정하는 모든 것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만 썼고 실제로 몇 장 되지 않았다. 그는 규칙의 결론 부분에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만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한 것이 다소 아쉬울지라도, (모든 것을 다 규정해 두고) "자족감이나 타성에 빠지는 것보다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썼다.

내가 고등학생 시절 떼제에 관해서 듣고 처음 구해 읽은 책이 『떼제의 규칙』이었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떼제에 왔다. 그 런데 로제 수사가 세상을 떠난 2005년까지 20년 가까이 그분 가까이에 살았지만 나는 그분 입에서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

그는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규칙으로 썼지만 형제들이 문자나 규정에 얽매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빛"을 찾으려 힘쓰기를 바랐다. 그런 노력을 그만둔다면, "규칙은 불필요한 짐을 지는 것이며 차라리아예 쓰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언젠가 로제 수사는 이렇게 썼다.

작은 공동체여, 그대는 누구인가? 일을 더 잘 하기 위한 도구인가? 결코 아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함께 모인 단체인가? 그건 더욱 아니다. 우리는 함께 안온하게 지내려는 공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럴경우 공동체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되고 말 것이다.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공동체로 사는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가운데 그렇다. … 그대는 무엇에로 부름 받았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의 비유'이다.

우리는 분열된 그리스도인들 사이, 갈라진 민족들 사이에서 화해의 징 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의 형제 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동체의 비유는 그런 것이다.

로제 수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 공동체의 형제들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알로이스 수사는 신임 원장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로제 수사의 후 계자입니다."

점손의 말만이 아니었다. 어떻게 창설자의 많은 유산을 한 사람이 혼자 다 계승할 수 있겠는가? 로제 수사는 우리를 이끌었지만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알로이스 수사의 말은 형제들 모두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자는 뜻이면서 동시에 창설자가 계셨던 시기처럼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기도 했다.

- 신한열, 「함께 사는 기적」(신앙과지성사)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잠자리

- 이인구

제 생각보다 멀리 난 듯 앉으려다 더 가야 할까 이곳이 맞기는 하는 걸까/ 넉넉한 수평도 아닌 수직 실은 백척간두와 같은 나무 대궁 끝을 앞에 두고 작자리 망설인다/ 저 초조하고 신중한 선회/ 앉았어도 날개를 접을 수 없는 만 개가 넘는 홑눈의 긴장 잘 보려, 멀리 보려는 운명의 답답한 피로여/ 잠자리를 잡았다 놓아 준다/ 놓인 잠자리는 멀리 단번에 난다 생각 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알 도리 없는 운명에 한번 제대로 잡혔다 풀려난 연후에야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일까/ 이제야 빈집 뒷마당에 홀로 선 나는 어떤 운명에 잡혔다 놓인 것일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허금

김성우 박유경 김정근 김정미 권미정 김승현 김수진 김애순 김영호 김용진 박효선 김재환 김추영 김중현 성귀옥 김지훈 김진우 임미진 김필순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방문성 박혜경 백성래 안길상 이형숙 안미숙 윤성종 은<u>종</u>인 이응석 이근식 이은경 신영신 이순용 김신실 이순이 이용현 유정덕 구성실 최연실 이유선 이유진 이용석 이은경 이정은 이치림 강상연 임광호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전은택 정성식 정연경 최미자 최 숙 최양순 최윤화 최형균 강경화 추헌영 한성건 정지혜 한인철 조윤숙 허호범 박성실 무명1

감사헌금

김상범 오미숙 김필순 남윤경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백묘현 서효정 서효진 손숙경 신혜진 은기순 이미정 이상도 이은혜 이재문 임설희 임종수 정영례 조유진 조호진 최승주 최다온 최형서 하현일 김광우 한상수 남해린 무명3

생일감사헌금 김정화 정영선

녹색꿈헌금

김남홍 선우영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정효진 무명4

■ 집회안내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일 집회 |
|----------|---------------------|
| 청파성서학당 | 낮 집 회 / 설교 : 이범석 목사 |

| 예배 | 시간 | 장소 | 예배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대예배실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성서학당 | 13:30 | 대예배실 |
| 중고등부 | 10:4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1:00 | 교육관 |
| 청 년 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교회소식 ■

- 1.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임원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성경공부 : 오늘 오후 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 3. **속회** : 속회를 9월 1일부터 개학합니다.
- 4. 교사수련회 : 교사수련회가 9월2일(토) 청평 다큐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5. **주문 예약** : 음성 무농약 복숭아 주문 예약 받습니다. 5kg 1상자가 39,000원 (18-20알), 44,000원(15-17알), 50,000원(13-14알)입니다. 황도, 백도, 혼합 선택 가능합니다.
- 6. 교회 생활 안내 :

교회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청파동마을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주차티켓)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주세요.

7. 신앙실천 : 내일은 칠석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미정

| | | 설교 | 기도 | 성경 봉독 |
|------|----|-----|------|------------------|
| 다음 주 | 1부 | 김재흥 | 공동기도 | 인도자 |
| 예배위원 | 2부 | 김재흥 | 김기석 | 김현주 |

1부 영접위원권미정헌금위원하현철9월2부 영접위원박홍재 이성범 정원석 박상규 김애순 김현영2부 헌금위원김인걸 안홍숙

오늘 식당 봉사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임설희 이경아 박구병 송형운 정재기 다음주식당봉사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송인선 이혜선 조성일 박범희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2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박명제